

사회

가난에... 병마에... 외로움에...

목숨 던지는 황혼들

최근 노인들의 안타까운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요인이 경제적 공핍과 외로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9일 오후 5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 사는 A(여·78)씨가 12층에서 뛰어내려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3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교사인 자녀, 남편과 같이 사는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유서는 없었다.

경찰과 가족들은 우울증과 장애를 겪고 있던 A씨가 고통에 건강이 좋지 않아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곡성군 석곡면 한 마을에서는 차매를 앞둔 부인을 수발하던 B(78)씨가 부인

우울증 비관 70대 투신

아내 병간호 지쳐 음독

안타까운 자살 예방을

(76)과 함께 음독 자살했다. 이 부부는 음독을 하기 전 자살에 전화를 했고 유산 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까지 남기기도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노부부가 병중인 아내를 요양원에 보내는 문제로 자식들과 갈등을 빚었고, 아내의 병이 악화되자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5일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를 받았던 C(72)씨가 광주시 동구 선교수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오전 등산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무등산을 등반했으며 집에 전화를 걸어 '고생만 시켜서 미안

하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년 전 화상을 입고 교통사고까지 당한 C씨가 신변을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석복 광주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외로움 등 노인 자살을 유발하는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살 고위험군인 노인들을 돌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예방·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이 도·농복합지역인 만큼 여가와 수익을 창출해 복지여건을 강화하고 농약 등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자살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2011년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기준)은 65.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46.1명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도로주행시험 코스 내달부터 4개로

태블릿PC 도입... '내비'로 코스 음성 안내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내달부터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 도로주행코스 안내는 함께 탑승한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맡게 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태블릿PC가 도입돼 응시자들이 이같이 변경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우선 기존에 2개이던 도로주행코스 선택의 범위가 4개로 늘어나 응시자들은 4개 코스 중 시험날 무작위로 선택되는 1개 코스로 도로주행시험을 보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장은 예비노선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험장 인근 주행노선을 확보해 이중 4개를 태블릿 PC에 입력하며 시험 시행 20일 전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주행코스 음성안내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

다. 시험관이 육성으로 안내하던 기존 방식은 타이핑과 시험관의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있어 수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대목 중 하나였다.

앞으로는 태블릿PC를 통해 채점관이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입력하는 것도 달라지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점수를 즉시 입력하면 시험을 마친 이후에 추가로 감점행위가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사라지고 시험이 끝날과 동시에 채점 결과가 합산 출력돼 어느 부분에서 감점됐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달 뒤인 12월부터는 채점관 대신 태블릿PC가 자동으로 채점하는 부분이 늘어날다.

급출발과 속도위반 등 차량에 부착된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태블릿 PC가 직접 채점·입력해 시험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채점 오류를 줄이게 된다.

/연합뉴스

광주시 '고질적 악취' 해소 나선다

하남산단 등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조례 제정 추진

광주 하남산단단지 인근 주민들이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보도(본보 10월 29일자 7면)와 관련, 광주시가 악취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악취 발생 민원이 많은 산업단지와 사업장을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는 한편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악취배출도가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주민에게 고통을 줄 정도의 악취가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제재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내달 1일자로 '광주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심사 및 법제심

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복합악취'의 경우 현행 악취방지법의 배출허용기준보다 25~50%가, '지정악취물질'인 알코올, 메틸메르캅탄 등 22개 항목은 50~80%가 강화된다.

특히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외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하고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해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를 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선냄비 기부금 신용카드로 받아

신용카드사회공회위원회와 한국수출입은행은 30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구세군빌딩에서 협약을 맺고 올해 모금기간에 신용카드로도 기부할 수 있는 '디지털

자선냄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자선냄비는 자선냄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부착한 것으로, 기부를 원하는 고객이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면 한 번에 2000원이 결제된다.

올해 자선냄비 거리모금은 11월30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300여곳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3분, 해질 17시 39분, 달돋이 18시 28분, 달질 07시 58분. 산간지방 얼음, 내륙 산간지방에는 서리 내리고 얼음 얼었다. 광주, 목포, 여수, 나주, 완주, 구례, 강진, 해남, 장흥, 순천, 영광, 진도, 군산, 남원, 흑산도. (오전) 바다, (오후) 바다, 주간날씨.



눈부신 가을 단풍

30일 오후 약간 쌀쌀한 기운마저 감도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자, 온통 충천연석으로 물든 광주 5·18기념공원 산책로를 시민들이 한가로이 걷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수능 최저학력 기준 낮춰달라"

교과부, 주요 대학에 권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요 대학들에 2014학년도 입시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개최한 주요 대학 입학처장 간담회에서 2014학년도 입시에서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 검토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대학 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교과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을 비롯한 수

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수시모집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 6년차에 접어들어 대학 입학사정관의 전문성이 쌓여 수능성적에 의존해 신입생을 뽑을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부터 수험생의 학력 수준에 따라 국어, 수학, 영어를 쉬운 A형과 어려운 B형 중에서 선택해 보는 것도 큰 변화다.

/연합뉴스

감염 우려 임플란트 식약청, 회수 조치

감염 우려가 있는 임플란트 제품이 전국 치과에 무더기로 공급돼 보건당국이 조사와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주)아이씨엘

의 치과용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어지는 하단 부위) 제품 4종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가 생산한 임플란트 제품의 수는 작년에만 1만개에 이른다.

식약청은 아이씨엘이 멸균하지 않은 임플란트 제품을 치과 병·의원에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세계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 부산 남포동점, 대구 동대구역점, 광주 동문점, 대전 동대구역점, 세종시 보청점, 수원 보청점, 인천 보청점, 광주 보청점, 목포 보청점, 여수 보청점, 나주 보청점, 완주 보청점, 구례 보청점, 강진 보청점, 해남 보청점, 장흥 보청점, 순천 보청점, 영광 보청점, 진도 보청점, 군산 보청점, 남원 보청점, 흑산도 보청점.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CE 0120, ISO 9001인증, ISO 13485인증, GMP, 의료용기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021538-9388.